

# 물음문에 의한 정보전달의 특성과 정보전달의 단위에 대한 리해

안 성 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과학은 혁명실천에서 긴절하게 나서는 문제들에 옳은 과학리론적해답을 주어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9권 499페이지)

현시기 물음문에 대한 연구는 조선어문장연구에서뿐아니라 언어학의 다른 분야와의 련관속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진행하여야 할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그 어떤 사실이나 현상들에 대한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리해는 바로 언어행위과정에 《물음》이 생기게 하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다. 즉 그 어떤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의 의지—심리적계기의 발현이 《물음》인것이다.

일반적으로 《물음》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것》 또는 《묻는것, 묻는 말》등으로 리해된다.

레: 저게 뭘가?

저것이 바로 그 나무입니까?

사람들은 완전히 모르거나 잘 모르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접하였을 때 《물음》을 가지고 그것을 알고 노력한다.

언어현상으로서의 《물음》은 언어행위과정에 여러가지 형식으로 표현된다.

《물음》을 표현하는데서는 언어적요소들뿐아니라 비언어적요소들도 있다. 즉 손짓이나 몸짓, 눈짓, 약속된 동작이나 기호들로 《물음》을 나타낼수 있다.

그러나 《물음》을 나타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언어적수단이다. 언어행위에서 《물음》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그들을 둘러싼 언어적환경 등의 영향을 받으며 천태만상으로 표현된다.

《물음》을 나타내는 언어적요소로는 물음형태, 물음단어, 억양, 어순 등이며 그에 의하여 표현되는 《물음》의 형식은 매우 다양하다. 그밖에도 언어적환경, 장면, 문맥에 의하여 《물음》이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요소들은 그것이 《물음문》이라는 언어적단위와 련결되어 표현되었을 때 비로소 《물음》을 나타내게 된다.

결국 《물음문》을 《물어보는 문장》이라고 하면서도 그 종류에는 확인의 물음문, 구체적인 대조, 듣는 사람에 대한 감정정서적빛깔을 나타내는 물음문, 어떤 사실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물음문 등도 다 포함시키고있다.

레: 우리들이 언제 이런 전투를 마다한 일이 있는가?

우리가 리명박역도의 이런 만행을 용서할수 있단 말인가?

벌써 다 끝냈소?

왜 학교에 안가니?

위의 실례들은 《물어보는 문장》인것이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한 확인, 부정, 추짐 등을 나타내는 물음문들이다.

사람들의 교제—이것은 바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언어교제는 무의미하며 문장은 반드시 정보전달적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물음문도 문장의 한 부류로서 자기의 고유한 정보전달적특성을 가지고있다.

물음문의 정보전달적특성은 우선 이야기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레: 아버지가 출장을 가셨어요?(-예)

아버지가 래일 돌아오신대요?(-그래)

오늘도 150%야(-정말?)

물음문으로 나타나는 대답에서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한 놀람, 경탄, 의혹 등을 표현하는데 이것은 일정한 정보를 받고 그에 대한 여러가지 감정을 물음문으로 전달하는 독특한 정보전달방식이라고도 할수 있다.

물음문의 정보전달적특성은 또한 그 어떤 정보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사람의 주관적태도가 짙게 깔려있다는 것이다.

레: 련못동이 여깁니까?...

여기가 련못동이지요?...

여기가 련못동입니까?...

여기가 어딴니까?...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우의 실례문장가운데서 어느 문장으로 묻는가에 따라서 그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알고있는가를 판단할수 있고 그에 맞는 대답을 줄수 있다.

즉 실례 ①에서는 《예, 여깁니다.》, ②에서는 《예, 맞습니다.》, ③에서는 《예, 련못동입니다.》, ④에서는 《련못동입니다.》로 대답하여야 한다.

레: 뺄스를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우의 실례의 물음문은 《뺄스를 타고 갑시다.》라는 권유문의 정보량과 같다. 그러나 정보전달의 효과성에서는 권유문보다 더 높다고 할수 있다. 즉 물음문은 같은 량의 정보라도 그것을 보다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전달할수 있으며 보다 강한 추궁이나 질책, 명령도 나타내게 된다.

레: ① 오랜 일군인 동무가 그래 그렇게밖에 할수 없는가?

② 동무들이 힘을 합쳐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은 서로 말을 주고받거나 글을 짓거나 읽을 때 문장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단번에 파악하는것이 아니라 그의 구성단위에 대한 분석과 종합을 거쳐 리해하게 된다. 그리고 언어생활에서 언제나 이미 알고있는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내용을 알려고 한다. 즉 이미 알고있는 정보, 교체과정에 리용되는 정보가 구정보이고 새로 알게 되는것이 신정보이다.

구체적으로 구정보는 이미 알려진 내용의 정보를 나타내는 문장론적단위이며 신정보는 새로운 내용의 정보를 나타내는 문장론적단위이다.

정보전달의 단위로서의 구정보와 신정보는 문장의 의미기능적부분으로서의 주제부, 설명부와 일련의 공통성을 가지고있다.

주제부는 문장에서 진술의 출발점, 기초 혹은 대상을 나타내는 문장론적단위이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에 특히 글말체문장에서 주제부는 곧 구정보로 된다.

주제부와 구정보는 진술의 출발점, 기초라는 점에서는 일치하며 설명부와 신정보는 진술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일치한다. 구정보와 신정보로 문장을 구획하는것은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획이다. 주제부와 설명부로 문장을 구획하는것은 말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획이다.

일정한 사실이 정보로 되자면 전달되는 내용이 이야기듣는 사람에게는 새로운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구정보와 신정보는 여러가지 언어적표현형태를 가진다.

구정보는 우선 도움토 《는, 은》에 의하여 표현된다.

도움토 《는, 은》이 구정보의 중요한 표현형태로 될수 있는것은 바로 거기에 사물, 현상 등을 찍어서 가리키는 의미 즉 《지정》의 의미가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도움토 《는, 은》은 이야기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사물, 현상을 지정하여 가리킴으로써 이미 알고있는것들이라는것을 표현한다.

례: 농장벌에서는 모내기가 한창이다.

구정보는 또한 도움토 《란-이란》, 《야-이야》, 《야말로-이야말로》 등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례: 사회주의적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이다.

한편 신정보는 우선 주격토 《가, 이》에 의하여 표현된다.

주격토 《가, 이》에는 어떤 행동이나 상태의 주체를 나타내는 의미와 함께 그 대상을 특별히 강조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있다. 바로 이런것으로 하여 주격토 《가, 이》가 붙은 사물, 현상 등을 나타내는 정보부분은 신정보로 된다.

례: 내가 가겠다.

신정보는 또한 억양에서의 짧은 휴지에 의하여 표현된다.

례: 오늘 만경대로 간다.

반면에 초점은 《누구》, 《무엇》, 《어디》, 《언제》, 《왜》 등과 같은 의문대명사와 의문을 나타내는 각이한 단어들에 의하여 표현되며 또 그것들에 대응되는 단어에 의하여 표현된다.

문장을 정보전달의 측면에서 구정보와 신정보로 구분하는것은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구획으로 입말체물음문에서 의의를 가진다.

례: 영철동무는 무슨 책을 읽었습니까?

(《배움의 천리길》을 읽었습니다.)

주어가 물음대명사로 된 물음문과 그 대답에서 구조적단위를 구획하는 경우 구정보와 주제부는 일치하지 않게 된다.

례: 누가 학교에 갔니?

(영철이가 학교에 갔다.)

우의 실례를 보면 구정보와 신정보로 구획하는 방법은 입말체물음문의 문장구조를 구획하는 가장 적중한 방법이며 이 구획방법이 구체적인 언어환경에서 앞뒤문장의 련관 속에서 이미 주어진것과 그에 기초하여 새로 전달되는 내용을 구획하는 방법이다.

대화를 기본으로 하는 입말체물음문의 대답은 신정보로만 될수 있다.

례: 영철동문 언제 오니?-래일.

영남동문 안먹어?-먹었다. 너나 먹으렴.

영식동문 왕재산에 가본적이 있니?-그럼.

정보전달의 기본단위인 문장에서 추구하는 정보적목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제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구정보와 신정보의 위치를 옳바로 구획지어야 한다.

정보전달의 마당으로 되는 사람들사이의 교제를 실현하는 기본방식인 대화는 묻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즉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대화에서 묻고 대답하는것은 필연적이며 이로부터 물음문의 사용 역시 필수적이다.

정보전달의 첫 출발점으로 되는 물음문의 정확한 사용과 그 의미파악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다같이 교제의 정보적효과성을 높일수 있게 하는 전제로 된다.

물음문의 정확한 의미파악, 그 정보전달적목적의 파악에서 구정보와 신정보의 위치구획은 매우 중요하다. 다양한 정황속에서 복잡하게 오가는 대화의 의미를 제때에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장의 구정보와 신정보를 잘 갈라보아야 한다.

물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대화에서는 물음에 의한 구획의 원칙이 적용된다.

물음문에서는 물음대명사, 물음부사에 강조의 억양마루가 오면 신정보부분이 되고 기타는 구정보이다.

례: ① 너 그게 무슨 소리냐?

② 누가 그런 말을 하던?

③ 너는 왜 안가니?

④ 저애들은 뭘 하니?

우의 실례들을 통하여 말하는 사람은 물음단어로 자기가 알려고 하는 내용 즉 신정보에 대하여 강조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같은 구조형식의 한 문장이지만 물음대명사가 들어가지 않은 물음문인 경우에는 정보전달내용과 위치가 다르다.

례: 오늘 토지정리한 밭에 그 씨를 뿌렸는가?—4개의 상태

물음문	억양어조위치	구정보	신정보	물음	대답문장
오늘	①	②③④	①	언제?	오늘
토지정리한 밭에	②	①③④	②	어디?	토지정리한 밭에
그 씨를	③	①②④	③	무엇?	그 씨를
뿌렸는가?	④	①②③	④	어떻게?	뿌렸다.

현대조선어물음문은 물음과 대답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는 구정보로 되고 신정보의 실머리를 던져준다. 현대조선어물음문은 구정보—신정보의 체계로 이루어진다.

물음문에 대답하는 문장에서는 구정보가 생략되어 문장의 간결성을 보장할뿐아니라 빠른 회전으로 대화를 더욱 촉진시킨다. 이러한 류형의 물음문에서는 신정보의 전달이 구정보에 비하여 그만큼 긴박하고 중요하기때문에 신정보를 구정보보다 앞에 표현함으로써 정보전달적효과를 높일수 있게 한다.

이처럼 언어생활에서 구정보와 신정보의 위치를 명백히 하는것은 물음문의 정보전달적특성을 옳게 파악하고 그 기능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모든 언어학자들은 조선어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보다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이다.